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지난 7월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사고사망 감소 100일(7. 16.~10. 31.) 긴급대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에 중점을 두고 패트를 수시 점검 등 산재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공단은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 패트를 점검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였다.

패트를 점검-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공단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한 뒤 진행했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미개선 사업장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부에서 감독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 이행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그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뤄졌다.

10월 10일 기준 전국 25,818개 사업장에 대해 패트를 점검

을 실시하였으며, 21,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하여 383개소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감독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 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중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였다.

‘공사종류-시공 순위-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하여 점검 대상 사업장 순위(1,500여 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장 확인 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노동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재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의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
-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 5년간 총 300~500만 원 지원,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은 길어지고, 지원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취약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